

❖ 정부시책 ❖

'97 산업기술개발자금 지원 대폭 확대

- 통상산업부는 만성적인 국제무역수지 적자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조속히 회복시키기 위하여 기술개발사업비를 지난해 보다 크게 늘려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음.
- 통상산업부는 이와 함께 민간기업의 기술개발 분위기를 조성하여 기업 스스로 기술혁신을 주도해 나가도록 하기 위한 기술개발 활성화 대책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임.
- 통상산업부는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의 구체적 실천방안의 하나로 산업기술혁신에 박차를 가해 나가기로 하고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728억원,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에 2,779억원, 시제품 및 첨단기술제품개발사업에 2,927억원 등 총 6,434억원을 '97년도 기술개발사업에 집중지원기로 함.
- 기술개발사업별 지원규모를 살펴보면,
 -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728억원)은 기술인력 양성, 기술정보 관리기능 확충 등 기술개발여건 조성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부문에서는 산업현장의 애로기술 해소를 위한 “국산화시급기술”의 개발에 760억원, 4-5년내에 고부가가치핵심기술개발이 가능한 중기거점기술개발에 732억원, 2000년대 세계 일류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해 나가기 위한 선도기술개발(G7)에 640억원 등 총 2,779억원을 지원해 나갈 계획임.
- 또한, 만성적인 무역역조구조의 개선을 위해 기계류 등 핵심자본재의 시제품 및 첨단기술제품을 개발하는 사업분야에도 총 2,927억원(시제품분야 2,300억원, 첨단기술제품분야 627억원)을 집중지원해 나갈 계획임.
- 통상산업부는 '86년 이후 '96년까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투자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옴으로써 총 147억불의 무역수지 개선효과가 있었다고 밝히고
 - '97년중에도 지속적인 기술개발 지원으로 수출증대 5억불, 수입대체 11억불 등 총 16억불의 무역수지 개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 개발기술이 주변산업에 응용되는 비가시적인 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보고 있음.

- 한편, 통상산업부는 기업의 자발적인 기술개발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서
 - 산업현장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를 통하여 “’97 국산화시급기술” 과제와, 2000년대 주력기술로 부상될 “고부가가치 핵심기술” 과제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며
 - 지금까지 개발이 완료된 기술 및 특허 기술 등에 대해서는 시제품개발 자금을 융자지원하여 주고, 신기술에 대한 특허등록 지원 등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해 나갈 계획임.
- 한편, 기업이 자체적으로 기술개발에 성공하고도 사업화 자금이 부족하여 실용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기술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으며
- 아울러 기업 스스로 기술혁신사업을 전개해 나가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기업에 대한 기술·품질·생산성 향상 애로요인을 진단하여 주는등 기술개발 분위기 혁신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음.

〈 기술개발지원에 따른 무역수지 개선효과 및 전망 〉

(단위 : 백만불)

	'94까지	'95	'96 추정	'97 전망
수입대체	8,658	707	900	1,100
수출증대	3,948	219	300	500
계	12,606	926	1,200	1,600

〈 부문별 지원실적 및 계획 〉

(단위 : 억원, %)

	'95	'96	'97 계획	전년대비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95	299	728	143.4
공기반사업	1,811	2,323	2,779	19.6
• 공통핵심기술개발	500	700	760	8.6
• 증기저점기술개발	506	571	732	28.2
• 선도기술(G7)개발	333	430	640	48.8
• 항공우주기술개발	270	396	230	-41.9
• 부품연구소 지원 등	202	226	417	84.5
시제품 및 첨단기술 제품개발사업	1,845	2,545	2,927	15.0
계	3,751	5,167	6,434	24.5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사용권고 제도 시행

- 통상산업부는 각 공공기관의 에너지절약을 도모하고 신규 개발된 고효율기자재의 시장기반을 창출하기 위하여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사용권고제도”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 권고대상인 고효율기자재는 고효율 유도전동기, 26mm 32W형 형광램프 및 형광램프용 안정기, 전구형 형광램프, 고조도 반사갓 및 인체감지 조명기구의 6종으로 하였다.
- 통상산업부는 각급 기관에 우선권고 등을 통하여 고효율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이 공공기관에서 적극 사용될 수 있도록 요청하며, 권고제도가 실질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향후 재정경제원 등 관련부처와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 통상산업부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의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사용권고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제정하여 고시하고, '97년부터 시행키로 하였다.
 - 이 제도는 각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에너지절약 효과가 큰 기자재의 사용을 권고하는 제도로서
 - “공공부문 에너지절약 추진지침”(국무총리지시 1996-16호)에 따라 공공부문 에너지절약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 이 규정에 따르면, 공공기관에 사용권고의 대상이 되는 고효율 에너지기자재(이하 고효율기자재)는 고효율 유도전동기 26mm 32W형 형광램프 및 형광램프용 안정기, 전구형 형광램프, 고조도 반사갓 및 인체감지조명기구의 6종으로 하였다.
 - 이들 고효율기자재는 에너지절약 효과가 크거나 기술개발사업에 따라 개발된 신기술 기자재로서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기술연구소, 한국전력 등 관련기관에서 제시한 기자재중 기술적 신뢰성과 경제성이 있으며, 시험방법이 명확한 기자재로 선정하였다.
- 통상산업부는 에너지절약 효과는 크지만 아직 기술적 신뢰성이 검증되지 않거나, 시험방법이 확립되지 않은 기자재에 대하여는 향후 기술개발정도 및 보급추이 등을 고려하여 고효율기자재의 범위에 추가할 계획이다.
- 고효율기자재의 구체적 범위는 관련 규정에서 일정한 효율 또는 기술수준을 정함

으로써, 각 제조업자 등이 시험기관(국립 기술품질원 등 5개기관)에서 시험을 실시하고 인증을 신청토록 하였으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고효율기자재의 인증여부를 평가토록 하였다.

－ 한편, 고효율기자재로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에 사후관리(제품검사)를 실시토록 하여 제품의 성능과 품질이 확보되도록 하였다.

○ 통상산업부는 고효율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이 공공기관에서 적극 사용될 수 있도록 각급 기관에 우선권고 등을 요청하였으며

－ 고효율기자재의 생산 및 보급이 촉진될 수 있도록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의 융자우대, 고효율기자재의 목록제공 및 홍보 강화 등의 지원책을 통해 이 제도

의 활용도를 높여 나가기로 하였다.

○ 이와 함께 고효율기자재 사용권고제도가 정착되도록 관계 부처와의 협조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 고효율기자재의 우선구매가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을 재정경제원에 요청하며,

－ 신축 건물에 고효율 에너지기자재가 설치될 수 있도록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의 보완을 건설교통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 통상산업부는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될 경우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에너지절약과 이에 따른 예산절감은 물론, 민간부문에 도 고효율 기자재 사용으로 인한 절약 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고효율기자재에 대한 시장기반도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고효율 에너지기자재의 적용범위 및 기술수준

1. 고효율 에너지기자재의 적용 범위

기 자 재	적 용 범 위
가. 고효율유도전동기	전압 600V이하의 일반용 3상 유도전동기로 KSC 4202 규정의 고효율 유도전동기
나. 26mm 32W 형광램프	KSC 7601 규정 이상의 형광램프로 전용안정기를 부착 시험한 결과 발광효율이 87.0lm/W 이상인 것
다. 26mm 32W 형광램프용 안정기	KSC 8100, KSC 8102 규정 이상의 26mm 32W 형광램프용 안정기로서 KSC 7601에서 정하는 표준램프에 KSC 8102의 표준안정기를 부착하여 점등시 비교효율(BEF)이 1.09이상인 것

기 자 재	적 용 범 위
라. 전구식 형광램프	KSC 7601의 부속서 1에 규정된 콤팩트형 형광램프 또는 동등한 목적으로 제작된 형광램프를 전자식 안정기와 조합하여 백열전구 소켓에 사용할 수 있는 것
마. 형광램프용 고조도 반사갓	KSC 7603 규정 이상의 형광램프 1등용, 2등용 반사갓으로서 반사판 반사율이 90% 이상인 것
바. 인체감지 조명기구	인체를 감지하여 220V, 1000W 이하의 조명등을 자동으로 점멸시킬 수 있는 센서를 부착한 등기구 또는 센서장치

주) 비교효율(BEF : Ballast Efficacy Factor)

$$BEF = \frac{\text{대상안정기의 1W당 광속(lm/W)}}{\text{표준안정기의 1W당 광속(lm/W)}}$$

2. 고효율 에너지기자재의 기술기준

품 목	기 술 기 준
가. 고효율유도전동기	KSC 4202에 따른다.
나. 26mm 32W 형광램프	KSC 7601에 따른다.
다. 26mm 32W 형광램프용 안정기	KSC 7601, KSC 8100 및 KSC 8102에 따른다.
라. 전구식 형광램프	KSC 7601 및 (1) 전구식 형광램프의 기술기준에 따른다.
마. 형광램프용 고조도 반사갓	(2) 형광램프용 고조도반사갓의 기술기준에 따른다.
바. 인체감지 조명기구	(3) 인체감지 조명기구의 기술기준에 따른다.

에너지 기술개발 10개년 계획 마련

통상산업부는 올해부터 오는 2006년까지 투입, 2006년 기준 최종에너지 사용량의 10
10년간 에너지기술개발에 총 2조472억원을 %를 절감하고 총에너지의 2%를 대체에너

지로 공급하며, 석탄·석유 등 화석에너지의 청정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통산부는 기술개발에 의한 에너지효율 향상을 도모하고 에너지절약기술, 대체에너지 기술, 청정에너지기술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에너지기술개발 10개년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본격적인 기술개발사업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에너지기술개발 계획을 부문별로 보면 에너지절약기술 개발에 8,932억원, 대체에너지 기술개발에 5,270억원, 청정에너지기술개발에 4,620억원, 실용화촉진기술개발에 1,245억원, 하부구조 확충사업에 405억원 등이다.

■ 중점개발 프로그램

○ 에너지절약기술 분야(12개)

중점개발 프로그램	개발 목표	효율향상목표(%) (현재대비)
분리공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라믹 막모듈개발 · 고분자 분리막 및 공정개발 · Fouling 방지기술 	25
· 고효율 변환/축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흡수식 냉난방기(대체냉매 적용) · 중대형 흡수식 히트펌프 	20
고효율 건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단분무 건조기 · 진공폐열원이용 진공건조기술 · 최적 운전기술 	30
고효율 공업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체설계, 열성능 예측기술 · 유리 및 알미늄용해로 폐열회수기술 	15
공조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AV시스템 개발 ·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20
보급형에너지 절약건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급형에너지 절약건물 표준설계기술확보 · 보급형 모델건물의 건설 	15
집단에너지 설비 최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거리 열수송기술개발 · 열원 다단계 열이용기술개발 	15

중점개발 프로그램	개발 목표	효율향상목표(%) (현재대비)
미활용 에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하철, 발전소 등의 배열에너지 이용기술 LNG의 기화냉열이용 냉난방시스템 	100
유도전동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삼상유도전동기 고효율화 완성 단상유도전동기 개발 	6
전동력 응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효율 인버터 등 제어기기 개발 펌프, 팬 등 유체해석 및 설계기술 확보 	25
조명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명제어 시스템기술개발 고효율 등기구 설계 및 제작기술 	12
소형 열병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박연소방식 1000KW급 가스엔진 최적설계 엔지니어링 기술개발 	40

○ 대체에너지기술 분야(4개)

중점프로그램	기술개발 목표
산업용 태양열시스템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공정열, 농수산분야 등 이용기술상용화(의존율 50% 이상) 태양열 발전기술 실용화(15KW급)
태양광 발전시스템 이용기술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변장치의 신뢰성 향상 및 표준화 발전단가의 저가화
석탄가스화 복합발전(IGCC)실용화기술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300MW 석탄가스화 복합발전 설계기술 확보 및 공정 평가 능력개발
연료전지 발전시스템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산형 200KW 발전시스템 상품화 및 MW발전플랜트 건설 용융탄산염형 : 100KW 시스템 실용화 및 MW 시스템 개발

○ 청정에너지기술 분야(4개)

분 야	중점 프로그램	기술개발 목표
석탄 청정	유동층 연소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압 순환 유동형 최적 운전기술확립 • 가압유동층 연소기술 실용화 개발
	석탄회 활용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탄회 분리, 개질, 공정개발기술 (유효 이용율 60% 이상)
	연소처리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효율 배연 탈황, 탈질 실용화 • 고효율 집진 기술 실용화 개발
석유청정	신촉매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질유 경질화 촉매 및 경유의 고심도 탈황 촉매기술
CO ₂ 가스의 자원이용	CO ₂ 의 분리회수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흡수법, 흡착법 등에 의해 분리 고효율 공정개발로 파일럿 기술 확보

공장입지 기준 고시 개정

기준공장면적율이 평균 10% 포인트 이하로 기업의 공장부지 확보난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통상산업부는 '공장입지기준고시'를 개정, 586개 업종의 기준공장 면적율을 평균 10% 포인트 인하해 기업의 공장부지 확보난을 완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완화된 공장기준면적율을 업종별로 보면 56개 업종은 현행 45%에서 30%로 15% 포인트 인하되고 36개 업종은 40%에서 30%로 10% 포인트 인하된다.

또 88개 업종은 35%에서 25%로, 222개

업종은 30%에서 20%로, 58개 업종은 25%에서 15%로 각각 인하된다.

이와 함께 54개 업종은 20%에서 15%로, 22개 업종은 15%에서 10%로, 37개 업종은 10%에서 5%로 각각 인하된다.

콘크리트제품 제조업 등 13개 업종은 종전대로 5%로 유지된다.

기준공장면적율이란 전체 공장용지면적 중에서 공장면적이 차지해야 하는 최저면적비율로 그동안 토지가격 안정을 위해 과다확보 제한을 목적으로 운용되어 업계의 입지확보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 업종별 기준공장 면적율(전기관련 업종)

표준산업 분류번호	업종명	기준공장면적율		
		현행		개정
		기존공장	신규공장	
29142	산업용 노 및 오븐 제조업	30(25)	35	25
29225	수지식 동력구동공구 제조업	40(30)	40	30
29226	용접기 제조업	35(30)	35	25
3110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30	30	20
31102	변압기 제조업	30(25)	30	20
31103	전자변성기 제조업	30(20)	30	20
31104	방전관용 안정기 제조업	30(25)	30	20
3110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 장치 제조업	30	30	20
31201	배전용 전기회로 개폐, 보호 및 접속장치 제조업	30(20)	30	20
31202	기기용 전기회로 개폐, 보호 및 접속장치 제조업	30(20)	30	20
31203	배전반 및 자동제어반 제조업	30(20)	30	20
31301	피복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30	30	20
31302	가공 절연코드 및 코드세트 제조업	35	35	25
31401	일차전지 제조업	30	30	20
31402	축전지 제조업	30(25)	30	20
31501	전구 제조업	30	30	20
31502	조명장치 제조업	30(25)	30	20
31503	광고용램프 및 유사 조명장치 제조업	30	30	20
31901	내연기관용 전장품 제조업	30	30	20
31902	전기경보 및 신호장치 제조업	40(35)	45	30
31903	자석 및 자석제품 제조업	30	30	20
31904	차량용 조명 및 전기장치 제조업	30	30	20
31905	전기용 탄소제품 및 절연체 제조업	35	35	25
31906	산업용 접시세척기 제조업	40(35)	40	30
3190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30	30	20

'96년도 노사협력 우량기업 확정 · 공표

- 노동부는 그동안 추진하여온 노사협력 우량기업 지원제도 시행을 위하여 '96년도 노사협력 우량기업 214개사(대기업 109, 중소기업 105개사)를 최종 확정 · 공표하였다.
- 올해 선정된 업체들은 '97. 1. 10부터 향후 3년간 그 자격을 유지하고, 정부의 세제, 금융, 인력지원 등에 있어서의 각종 우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96 노사협력 우량기업은 지난 9. 2부터 9. 25까지 신청 접수된 전국 420개사에 대하여 6개 지방노동청별로 정부, 학계, 노사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

회의 엄정한 심사와 관계부처의 검토를 거쳐 197개사가 선정되었으며, 이와 함께 '95, '96년도의 노사화합대상 및 산업평화의 탑 수상업체(17개사)는 별도의 선정 절차없이 노사협력 우량기업으로 선정되었다.

■ '96 노사협력 우량기업(전기관련 업체)

- 한일전기(주) ○ 삼성항공산업(주)
- 신아전기공업(주) ○ 보성중전기(주)
- 승림카본금속 ○ 삼성전기(주)
- 극동전선공업(주) ○ (주)우진산전

을 調達계획 10조1천억원 확정

조달청은 올해 조달사업계획을 지난해의 9조5,500억원보다 6% 증가한 10조1천억원으로 확정, 발표했다.

부문별로는 △내자구매 4조500억원 △외자구매 6,600억원 △시설공사계 5조1,700억원 △주요물자 비축 2,200억원 등이다.

특히 올해 조달사업규모 가운데 절반에 가

까운 5조400억원을 중소기업에 배정, 中企의 판로확보를 공공 구매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기로 했다.

또 지방업체가 생산하는 물품의 판로지원을 위해 총 규모의 37% 수준인 3조7,800억원의 물자를 지방에 있는 업체가 생산한 물품을 사는데 쓰기로 했다.

조달청은 이와 함께 올해가 조달시장 개방 원년인 만큼 입찰 및 계약제도를 국제규범에 맞도록 운용하고 국내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힘을 쏟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제무역기구(WTO)·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의 주요 규범에 맞도록 조달업무를 개편, 간소화함으로써 신속하고 공정한 조달행정을 수행하고 입찰유의서·계약조건·제반규정 등을 정부 조달협정에 맞춰 운용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 조달시장 개방에 따른 대외관계 업무를 위해 각종 통계자료를 수집하고 컨택트 포인트(contact point) 기능을 수행하며

이의신청 처리, 해외상품 및 가격정보 등을 제공하는 국제협력 전담조직의 상시 운영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조달청은 또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의 생산품 및 업체에 대해서만 입찰참가를 허용하는 한편 전국적인 대리점 구성 및 사후관리(AS)가 요구되는 품목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외자물품을 구입할 경우 국내업체에게 신용장(LC)을 개설하도록 추진, 출렌트 또는 시스템장비 구매시 국내업체를 주계약자로 하고 국내업체에게 신용장을 개설해 주계약자에게 공급주도권을 부여하기로 했다.